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16, No. 4, pp. 27~41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초한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家政 교과서 삽화의 단원별 계량적 내용분석[1)]

김 미 정*·유 태 명**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Content Analysis of Illustrations in the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of the 7th Curriculum by Units from the Gender Equity Perspective

Kim, Mee-Jeong*·Yoo, Tae-Myu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primary data for the revis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from the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of illustrations in current Home Economics textbooks from the gender equity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d 342 illustrations and 1,368 individuals in 15 volumes of Home Economics textbooks of the 7th curriculum by uni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current Home Economics textbooks improved compared to the textbooks of previous the 4th, 5th, and 6th curriculum periods in terms of sex proportion and sex compositions of individuals appeared in illustrations. However, sex roles, color of clothing and dressing styles, and background and description of individuals appeared in illustrations tends to not described as gender equitable.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re is a need for Department of Education to provide a specific manual and authorization standards for writing textbooks and constructing illustrations.

주제어(Key Words) : 양성평등적 관점(Gender Equity Perspective), 가정 교과서(Home Economics Textbook),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계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

1) 교신저자: 유태명(E-mail: franco@gsnu.ac.kr)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의도된 학교 교육에서'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수준과 범위로 가르치고 평가하느냐'를 문서로 계획한 교육 설계도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단순한 교육 내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목표, 내용, 방법이나 운영 방식, 평가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제 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성격을 마련하게 된 초석을 교육부[2]는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 찾고 있다. 이 방안에서는 신교육체제의 교육 비전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교육 사회, 평생학습 사회'의 건설을 주체로 학습자 중심 교육,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 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교육의 정보화를 통한 21세기형 열린교육, 평가를 통한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교육부, 2000).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이란 개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은 '인간평등'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현행 헌법 제 11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법 제 81조에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양성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정혜윤, 2001).

양성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정적인 관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에 비하여 상황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삶이 되므로(교육부, 1999a), 빠르게 급변하는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등학교 시기는 여성과 남성의 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의 성불평등적 교육은 청소년 스스로 성차별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당연한 것으로 인지하게 하여 장래의 자기상에 대한 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성불평등적 교육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적 노동 분화를 초래시키며 성불평등을 재생산하여 미래의 양성적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정혜윤, 2001; 전국교사협의회, 1989).

김재춘·왕석순(1999)은 최근 우리사회에 강조되고 있는 가치의 하나로 '양성평등'의 가치를 지적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 이념이 중요시됨에 따라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한 힘을 얻고 있다. 교육부(1999b)에 의해 발표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개발에 따른 「집필상의 유의점(고등학교)」(교육부, 1999c),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2종 도서 검증 기준」(교육부, 1999d)에서도 양성평등교육이라는 용어를 찾아 볼 수 있어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서는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개발되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실과, 특히 가정교과영역은 교과의 특성상 다른 교과목보다 양성평등 관련내용을 다루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제 6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과목이 남녀공통 필수 교과로 자리잡기 전까지 학교교육에서 전통적으로 가정과 교육은 생산의 영역에 대비되는 사적영역으로서 여성에게만 필요한 교과로 여겨지고, 반대로 기술과 교육은 공적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남학생에게는 기술과 기타 산업관련 교과를, 여학생에게는 가정과 가사 교과를 제공해 주었으며 이로 인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구조는 남녀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착시키는 한편, 성편견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김재춘·왕석순, 1999; 한명희 외, 1991).

교육과정은 학교교육활동의 핵심적 요소로서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바로서의 목적과 의도를 담고 있으며, 지식의 선정과 배분방식 또한 교육과정에 의해

2) 교육부는 2001년 1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로 개명되어 본문에 교육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명칭이 모두 사용되었다.

규정되고 있다. 교과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보다 구체화한 교수·학습 자료로서,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도구이며 교과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주고자 하는 경험, 즉 지식과 기술, 규범 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개체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학업은 교과서 위주로 계획, 진행, 평가되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비추어 볼 때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중요성은 실로 크다고 하겠다(김지희, 2001).

양성평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교육현실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서가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과 표현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80년대 이후 고조되어 왔다. 제 4차 및 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분석(주은희, 1996; 김재인·정해숙·양애경, 1993; 김정자·김선희·이영세·강선혜, 1986, 1985; 한명희, 1983; 정세화, 1977)이 이루어져 각급학교 교과서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며, 성차별적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의 개선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정해숙·정경아(1998)가 제 6차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의 성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제 6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가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개발되었다고는 하나 남녀등장인물 출현비율과 같은 외형상의 성 불균형이 다소 개선되었다는 점 이외에 교과서에 실린 교육내용 및 그 구성방식에 있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 6차 및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가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제 4차와 제 5차 교과서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해숙·정경아, 2003; 사미숙, 2003; 정해숙·김연, 2002; 김선경, 2002; 정해숙·정경아, 1998; 박순경, 1997). 타 교과의 경우도 교과서 삽화의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Chang, 2003; 장세준, 2000; 이덕주, 1999; 안혜영, 1998; 이정희, 1997).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교과서 연구가 주로 정책이나 제도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옴으로써 교과서의 실질적인 내용 구성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서도 교과서에 실린 삽화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있음이 지적되었다(정해숙·정경아, 1998; 박순경, 1997).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교과서 삽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에서 사진 부분을 삽화 속에 포함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심층분석 또한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한두 가지 정도로만 제시함으로써 다양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웠고 일반화된 내용으로 보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삽화와 사진 중 삽화를 분리해서 분석을 하였으며, 가정[3] 교과서 집필 시 가정학의 학문적 특성상 단원별로 내용 전공자가 집필진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원별·성별 중심으로 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제 1차에서 제 6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가 흑백으로 개발된 반면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다양한 색을 도입한 첫 교과서인 점을 감안하여 삽화 속의 옷의 색과 옷차림에 대한 분석도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양성평등 실현이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되어온 교육내용에서의 평등을 실현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가정영역을 중심으로 삽화 속의 양성평등 분석을 통해 그 경향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 시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학생들이 전통적 성역할고정관념이나 성정형성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삽화 속 등장인물의 성별구성과 등장인물간의 관계는 단원별로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삽화 속 등장인물의 성별분포는 단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삽화 속 옷의 색과 옷차림은 단원별로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가?

---

3) 이 연구에서 '가정 교과서'는 제 7차 중학교 교육과정 「기술·가정」교과서의 가정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가족'은 1학년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 '자원'은 2학년 '자원 활용과 환경' 단원, '주생활'은 3학년 '가족생활과 주거' 단원, '식생활'은 1학년의 '우리들의 영양과 식사' 단원과 3학년의 '가족의 식사 관리' 단원, '의생활'은 2학년 '의복마련과 관리' 단원을 의미하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4. 삽화 속 등장인물의 활동 배경은 단원에 따라 성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가?

5. 삽화 속 성인등장인물의 활동 묘사는 단원에 따라 성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가?

6. 삽화 속 아동 및 청소년등장인물의 활동 묘사는 단원에 따라 성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가?

7. 연구문제 1~연구문제 6에서의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삽화 속 양성평등적, 불평등적 표현에 대한 판단은 단원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가?

Ⅱ.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가. 분석 대상 교과서

분석 대상 교과서를 선정하기 위해 2000. 9. 18 교육인적자원부 검정을 거쳐서 2001학년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가정」교과서 중 경상남도 중학교 191개교에서 2003학년도 현재 채택되어져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출판사를 전화질의를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교과서는 〈표 1〉의 결과를 토대로 각 학년별 12개 출판사, 총 36권 중 학교현장에서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활용도가 높은 순으로 각 학년별 5개 출판사, 총 15권을 선정하고 임의로 A, B, C, D, E출판사로 정하여 그 중 「가정」 영역의 삽화를 분석하였다.

나. 분석대상 삽화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교과서의 삽화 수와 삽화 속 개별 등장인물 수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를 고려하여 〈표 2〉에 제시된 분석 대상 삽화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같은 내용과 배경 안의 여러 개의 삽화는 1개로 처리한다.

2) 한 명의 동일 인물이 한 프레임에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등장할 경우에는 1개로 처리한다(예: 한식이나 서양식 예절을 나타낼 경우 한 명의 여학생이 등장하여 장면마다 상황이나 설명을 하는 장면을 하나로 처리함).

3) 군중이 나오거나 신체의 일부분 특히 얼굴 부분이 가려져 성별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4) 성별이 인식되기는 하나 뒷모습이거나 얼굴 반 이하의 옆모습일 경우에도 인원수에서 제외한다.

5) 화보에 실린 경우나 장식을 목적으로 한 삽화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표 1〉 분석 대상 교과서

단위 : 개교(%)

학년 / 출판사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학교수	%	학교수	%	학교수	%	
두산	60	31.41	60	31.41	59	30.89	(A)분석교과서
지학사	38	19.90	38	19.90	38	19.90	(B)분석교과서
금성출판사	33	17.28	33	17.28	33	17.28	(C)분석교과서
동화사	16	8.38	16	8.38	16	8.38	(D)분석교과서
교학사	12	6.28	12	6.28	13	6.80	(E)분석교과서
기타*	32	17.75	32	17.75	32	17.75	
계	192	100.0	192	100.0	192	100.0	

* 분석대상 교과서 이외의 출판사들의 채택 현황은 이 표에서는 개별 출판사별로 제시하지 않고 기타 교과서로 분류하여 합계를 내어 보고하였다.

〈표 2〉 분석대상 삽화 수, 삽화 속 개별 등장인물 수

단위 : 개, 명

구분	A출판사	B출판사	C출판사	D출판사	E출판사	계
삽화 수(개)	60	59	101	76	46	342
삽화 속 개별인물수(명)	209	287	446	236	190	1,368

2. 내용분석방법

본 연구는 내용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교과서의 삽화에 대한 내용분석은 계량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계량분석은 정해숙 외(1998)의 연구에서 개발한 삽화 및 사진 분석지를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삽화 분석지, 삽화 등장인물 분석지를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계량분석은 가정과 교사 3인이 개별적으로 분석한 후 다수의 의견으로 판정하고, 3명이 각기 다른 판정을 한 경우 협의하여 최종 판정하였다. 연구문제 중 옷의 색과 옷차림의 경우 판단하기 모호하거나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의 준거에 따라 판단하였다. 옷의 색의 경우 성별에 차이를 두어 여성들은 붉은 색·노란색 계열, 남성들은 검은색·남색 계열과 같이 성정형화된 옷의 색으로 표현된 경우 불평등으로 판단하였다. 옷차림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청소를 할 때 남성은 앞치마 두르지 않고 여성만 두른 예와 같이 동일 활동을 묘사할 때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경우 불평등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집안일이나 청소를 할 때 활동의 성격에 관계없이 여성은 치마차림으로 표현한 예와 같이 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은 바지차림 여성은 치마차림의 성정형화된 표현을 불평등으로 판단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기술적 통계와 χ^2검증의 통계처리를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삽화별 분석지와 삽화 등장인물별 분석지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교과서 내용 분석지의 구성

구분	분석지 내용
삽화별 분석지	· 분석번호 · 출판사 · 단원 · 성별 구성 · 등장인물간의 관계 · 옷 색에 관한 평등성/불평등성 · 옷차림에 관한 평등성/불평등성 · 상황을 고려한 평등성/불평등성
삽화 등장인물별 분석지	· 분석번호 · 출판사 · 단원 · 등장인물의 출현 장소 · 개별 성인인물의 활동 · 개별 아동·청소년의 활동 · 성인 등장인물의 직업분포

내용분석은 삽화별 분석단위와 삽화에 포함된 개별 등장인물별 분석단위로 이루어졌다. 연구문제별 분석단위는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문제별 분석 단위

연구문제	분석방법	분석단위
1, 3, 7	계량분석	삽화별
2, 4~6	계량분석	개별 등장인물별

3. 신뢰도

본 연구의 내용분석에 대한 신뢰도는 Kassarjian 방법으로 구하였다. 분석자간 신뢰도(Inter-judge reliability)는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내용분석을 했을 경우 분석자간, 일치도를 말한다(degree of reliability). 분석자간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일치의 수/총수이며, Kassarjian 방법의 경우 85.5이상이면 만족할 만하며, 80이하의 경우는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보았다(박기범, 1990; Kassarjian, 1987). 본 연구의 신뢰도는 90.6으로 측정되어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만족할 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Ⅲ. 연구 결과

1. 등장인물의 성별 구성과 등장인물간의 관계

연구문제 1: 삽화 속 등장인물의 성별구성과 등장인물간의 관계는 단원별로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삽화 속 등장인물의 성별구성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남녀혼성의 비율이 72.8%로 가장 높고, 여성들만 17.8%, 남성들만으로 구성된 비율이 9.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비교해 보면 삽화에서의 성별 구성은 남녀혼성이 53.0%, 여성들만 13.3%, 남성들만 33.7%로 나타나(정해숙·정경아, 1998),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남녀혼성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여성들만 등장한 경우도 남성들만 등장한 경우보다 훨씬 높아져 여성들의 출현 빈도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단원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원에서 남녀 혼성이 가장 높고, 여성들만·남성들만의 순으로 성별 구성을 보였으나, 가족 단원에서는 남녀혼성 비율이 82.4%로 아주 높게 나타났고, 여성들만·남성들만 모두 8.8%로 같은

〈표 5〉 단원별 등장인물의 성별 구성

단위 : % (개)

구분	의생활	식생활	가족	자원	주생활	계
남녀혼성	67.0(57)	71.4(50)	82.4(47)	77.0(67)	65.1(28)	72.8(249)
여성들만	27.1(23)	20.0(14)	8.8(5)	12.7(11)	18.6(8)	17.8(61)
남성들만	5.9(5)	8.6(6)	8.8(5)	10.3(9)	16.3(7)	9.4(32)
계	100.0(85)	100.0(70)	100.0(57)	100.0(87)	100.0(43)	100.0(342)

χ^2=13.342 df=8 p=.101

비율로 나타났다. 등장인물의 성별 구성은 단원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삽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남녀혼성인 경우 가족관계와 비가족관계인 비율이 각각 39.7%와 39.3%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성들만·남성들만의 경우 비가족관계가 각각 73.8%와 71.9%로 나타났고, 가족관계는 각각 14.8%와 9.4%로 나타나 비가족관계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χ^2=33.470, df=4)를 보였다.

제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삽화에서의 등장인물간의 관계에서 남녀혼성인 경우 비가족관계 78.0%, 가족관계 23.0%로 비가족관계가 높았으며, 여성들만 등장한 경우 비가족관계 91.4%, 가족관계 8.6%, 남성들만 등장한 경우 비가족관계 96.1%, 가족관계 3.9%로 나타났다(정해숙 외, 1998). 이는 제 7차 교육과정기에서 남성들만이나 여성들만 등장하는 경우 가족관계가 점차 늘어나고, 비가족관계가

〈표 6〉 단원별 성별구성에 따른 등장인물간의 관계

단위 : % (개)

구분		가족관계	비가족관계	알 수 없음	계	통계량
의생활	남녀혼성	8.8(5)	59.6(34)	31.6(18)	100.0(57)	χ^2=6.533 df=4 p=.163
	여성들만	4.3(1)	78.3(18)	17.4(4)	100.0(23)	
	남성들만	20.0(1)	20.0(1)	60.0(3)	100.0(5)	
식생활	남녀혼성	65.3(32)	16.3(8)	18.4(9)	100.0(49)	χ^2=23.009 df=4 p=.000**
	여성들만	21.4(3)	78.6(11)	.	100.0(14)	
	남성들만	16.7(1)	66.6(4)	16.7(1)	100.0(6)	
가족	남녀혼성	32.6(15)	54.4(25)	13.0(6)	100.0(46)	χ^2=2.796 df=4 p=.593
	여성들만	40.0(2)	40.0(2)	20.0(1)	100.0(5)	
	남성들만	.	80.0(4)	20.0(1)	100.0(5)	
자원	남녀혼성	37.3(25)	37.3(25)	25.4(17)	100.0(67)	χ^2=15.598 df=4 p=.004**
	여성들만	.	81.8(9)	18.2(2)	100.0(11)	
	남성들만	.	88.9(8)	11.1(1)	100.0(9)	
주생활	남녀혼성	75.0(21)	17.9(5)	7.1(2)	100.0(28)	χ^2=13.962 df=4 p=.007**
	여성들만	37.5(3)	62.5(5)	.	100.0(8)	
	남성들만	14.3(1)	85.7(6)	.	100.0(7)	
계	남녀혼성	39.7(98)	39.3(97)	21.0(52)	100.0(247)	χ^2=33.470 af=4 p=.000**
	여성들만	14.8(9)	73.7(45)	11.5(7)	100.0(61)	
	남성들만	9.4(3)	71.9(23)	18.7(6)	100.0(32)	

** p < .01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원별로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식생활의 경우 삽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남녀혼성인 경우 가족관계(65.3%), 비가족관계(16.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들만의 경우 비가족관계(78.6%), 가족관계(21.4%)의 순으로, 남성들만의 경우도 비가족관계(66.6%), 가족관계(16.7%)의 순으로 나타나 식생활 단원에서는 삽화 속의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라 등장인물간의 관계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χ^2=23.009, df=4)를 보였다. 자원 단원에 있어서 남녀혼성의 경우 가족관계와 비가족관계가 37.3%로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여성들만의 경우와 남성들만의 경우는 비가족관계가 각각 81.8%, 88.9%로 나타나 성별구성에 따라 등장인물간의 관계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χ^2=15.598, df=4)를 보였다. 주생활 단원에서도 남녀혼성의 경우 가족관계 75.0%), 비가족관계 17.9%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여성들만의 경우 비가족관계(62.5%)가 가족관계(37.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들만의 경우도 비가족관계(85.7%)가 가족관계(14.3%)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 성별구성에 따라 등장인물간의 관계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χ^2=13.962, df=4)를 보였다.

2.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

연구문제 2: 삽화 속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는 단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삽화 속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여성의 비율이 50.3%, 남성의 비율 49.7%로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이 거의 1:1로 나타났다. 이를 제 4, 5, 6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의 삽화에서 여성 비율이 제 4차 35.6%(김재인 외, 1993), 제 5차 39.0%(김재인 외, 1993), 제 6차 38.2%(정해숙·정경아, 1998)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면,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여성의 등장비율이 점점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 7차 교육과정의 경우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여 성별 분포의 측면에서 양성평등적 관점이 잘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원별로 살펴보면 의생활에 경우 여성 59.7%, 남성 40.3%로 여성이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식생활 및 가족 단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각각 54.7%와 53.0%, 자원과 주생활 단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각각 50.4% 및 50.3%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는 단원별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χ^2=14.135, df=4)를 보였다.

3. 등장인물의 옷의 색과 옷차림

연구문제 3: 삽화 속 옷의 색과 옷차림은 단원별로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삽화 속 등장인물의 옷의 색을 살펴보면 〈표 8〉과 같이 평등 35.1%, 불평등 57.9%로서 불평등적인 내용이 많아 단원별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단원별로 살펴보면 의생활을 제외한 모든 단원에서 불평등이 평등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단원별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χ^2=20.626, df=8)를 보였다.

삽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옷차림을 살펴보면 〈표 9〉와 같이 평등 23.4%, 불평등 52.6%로 불평등적인 면이 많았다. 단원별로 살펴보면 모든 단원에서 불평등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평등 : 불평등의 비율이 단원별로 다르게 나타나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χ^2=17.589, df=8)를 보였다.

〈표 7〉 단원별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

단위 : % (명)

구분	의생활	식생활	가족	자원	주생활	계
여	59.7(169)	45.3(126)	47.0(132)	49.6(170)	49.7(91)	50.3(688)
남	40.3(114)	54.7(152)	53.0(149)	50.4(173)	50.3(92)	49.7(680)
계	100.0(283)	100.0(278)	100.0(281)	100.0(343)	100.0(183)	100.0(1368)

** $p < .01$ χ^2=14.135 df=4 p=.007**

〈표 8〉 단원별 옷의 색

단위 : % (개)

구분	평등	불평등	무관함	계
의생활	44.1(37)	45.2(38)	10.7(9)	100.0(84)
식생활	25.7(18)	67.1(47)	7.2(5)	100.0(70)
가족	20.7(12)	70.7(41)	8.6(5)	100.0(58)
자원	44.2(38)	54.7(47)	1.1(1)	100.0(86)
주생활	34.1(15)	56.8(25)	9.1(4)	100.0(44)
계	35.1(120)	57.9(198)	7.0(24)	100.0(342)

** $p < .01$ $\chi^2 = 20.626$ $df = 8$ $p = .008$**

〈표 9〉 단원별 옷차림

단위 : % (개)

구분	평등	불평등	무관함	계
의생활	30.9(26)	53.6(45)	15.5(13)	100.0(84)
식생활	25.7(18)	40.0(28)	34.3(24)	100.0(70)
가족	10.3(6)	67.3(39)	22.4(13)	100.0(58)
자원	25.6(22)	50.0(43)	24.4(21)	100.0(86)
주생활	18.2(8)	56.8(25)	25.0(11)	100.0(44)
계	23.4(80)	52.6(180)	24.0(82)	100.0(342)

* $p < .05$ $\chi^2 = 17.589$ $df = 8$ $p = .025$*

4. 등장인물의 활동 배경

연구문제 4: 삽화 속 등장인물의 활동 배경은 단원에 따라 성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가?

삽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른 활동 배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0〉과 같이 여성과 남

〈표 10〉 단원별 성별 등장인물의 활동 배경

단위 : % (명)

구분		가정	학교	공공·일반시설	야외	알 수 없음	계	통계량
의생활	여	29.5(49)	6.6(11)	12.1(20)	11.4(19)	40.4(67)	100.0(166)	$\chi^2 = 3.636$ $df = 4$ $p = .458$
	남	19.5(22)	7.9(9)	13.3(15)	12.4(14)	46.9(53)	100.0(113)	
식생활	여	69.7(85)	9.8(12)	4.9(6)	8.2(10)	7.4(9)	100.0(122)	$\chi^2 = 7.345$ $df = 4$ $p = .119$
	남	55.6(80)	11.1(16)	9.7(14)	9.0(13)	14.6(21)	100.0(144)	
가족	여	37.7(49)	7.7(10)	8.4(11)	23.1(30)	23.1(30)	100.0(130)	$\chi^2 = 2.486$ $df = 4$ $p = .647$
	남	32.4(48)	11.5(17)	6.8(10)	27.7(41)	21.6(32)	100.0(148)	
자원	여	52.1(88)	5.9(10)	18.3(31)	11.2(19)	12.4(21)	100.0(169)	$\chi^2 = 3.043$ $df = 4$ $p = .551$
	남	58.8(100)	4.7(8)	15.3(26)	13.0(22)	8.2(14)	100.0(170)	
주생활	여	88.5(77)	3.5(3)	3.4(3)	4.6(4)	·	100.0(87)	$\chi^2 = 7.108$ $df = 4$ $p = .130$
	남	80.0(68)	1.2(1)	3.5(3)	11.8(10)	3.5(3)	100.0(85)	
계	여	51.7(348)	6.8(46)	10.5(71)	12.2(82)	18.8(127)	100.0(674)	$\chi^2 = 3.371$ $df = 4$ $p = .498$
	남	48.2(318)	7.7(51)	10.3(68)	15.2(100)	18.6(123)	100.0(660)	

성 모두 가정을 배경으로 한 비율이 남성 48.2%와 여성 5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야외, 공공·일반시설, 학교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 등장인물의 활동 배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정 교과는 가정생활 전반을 다루는 교과이기 때문에 가정이 활동배경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제 4차, 5차, 6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의 삽화에서 등장인물의 배경을 비교해 보면, 야외에 출현하는 비율이 제 4차 교육과정에서 여성 47.5%, 남성 49.8%로 가장 높았다(김재인 외, 1993). 제 5차 교육과정에서는 여성은 가정 35.9%, 남성은 야외 4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김재인 외, 1993).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여성 48.5%, 남성 51.8%로 야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정해숙·정경아, 1998). 그러나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남녀 모두 가정에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조금 더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가정을 여성과 연계시키는 사고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단원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원에서 남녀 모두 가정을 배경으로 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의생활 단원에서는 활동 배경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원 단원을 제외한 모든 단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가정에서 더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단원에서는 남성이 가정에서 더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성인등장인물의 활동 묘사

연구문제 5: 삽화 속 성인등장인물의 활동 묘사는 단원에 따라 성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가?

삽화 속 성인등장인물의 활동을 성별로 살펴보면 〈표 11〉과 같이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소비생활/일반생활/자녀양육이 44..0%로서 가장 높고, 가족관계/친구모임 25.3%, 직업활동 12.9% 순이었으며, 남성의 경우 가족관계/친구모임이 32.0%로서 가장 높았으며, 직업활동 24.5%, 가사노동/소비생활/일반생활/자녀양육 24.5% 순으로 나타나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14.135$, df=4)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의 주된 활동이 가사노동이고, 남성의 활동 중 직업활동의 비율이 24.5%인데 비하여 여성의 직업활동은 12.9%에 머물러 양성

〈표 11〉 단원별 성인등장인물의 활동 묘사

단위 : % (명)

구분		직업활동	가사노동/소비생활/일반생활/자녀양육	가족관계/친구모임	운동/예술/구경/놀이/예술/봉사	기타	활동묘사가 아닌 경우	계	통계량
의생활	여	9.4(6)	37.5(24)	4.7(3)	1.5(1)	·	46.9(30)	100.0(64)	$\chi^2=7.861$ df=4 p=.097
	남	22.4(11)	18.4(9)	10.2(5)	2.1(1)	·	46.9(23)	100.0(49)	
식생활	여	8.1(3)	62.2(23)	29.7(11)	·	·	·	100.0(37)	$\chi^2=9.001$ df=3 p=.029*
	남	17.1(7)	29.3(12)	51.2(21)	2.4(1)	·	·	100.0(41)	
가족	여	11.8(4)	38.2(13)	47.1(16)	2.9(1)	·	·	100.0(34)	$\chi^2=5.949$ df=5 p=.311
	남	20.7(6)	27.6(8)	34.5(10)	6.9(2)	6.9(2)	3.4(1)	100.0(29)	
자원	여	35.7(15)	28.5(12)	26.2(11)	4.8(2)	2.4(1)	2.4(1)	100.0(42)	$\chi^2=1.773$ df=5 p=.880
	남	34.3(11)	28.1(9)	31.3(10)	6.3(2)	·	·	100.0(32)	
주생활	여	2.1(1)	56.3(27)	33.3(16)	6.3(3)	2.1(1)	·	100.0(48)	$\chi^2=19.113$ df=4 p=.001**
	남	28.6(14)	22.5(11)	36.7(18)	6.1(3)	6.1(3)	·	100.0(49)	
계	여	12.9(29)	44.0(99)	25.3(57)	3.1(7)	0.9(2)	13.8(31)	100.0(225)	$\chi^2=23.462$ df=5 p=.000**
	남	24.5(49)	24.5(49)	32.0(64)	4.5(9)	2.5(5)	12.0(24)	100.0(200)	

* $p < .05$ ** $p < .01$

불평등적으로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원별로 살펴보면 식생활 단원에서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소비생활/일반생활/자녀양육(62.2%)/가족관계/친구모임(29.7%)/직업활동(8.1%) 순으로, 남성의 경우 가족관계/친구모임(51.2%)/가사노동/소비생활/일반생활/자녀양육(29.3%)/직업활동(17.1%)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성인등장인물의 활동묘사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χ^2=9.001, df=3)를 보였다. 주생활에서는 여성은 가사노동/소비생활/일반생활/자녀양육이 56.3%, 가족관계/친구모임 33.3%, 운동/예술 활동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가족관계/친구모임 36.7%, 직업활동(28.6%), 가사노동/소비생활/일반생활/자녀양육 22.4% 순으로 나타나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χ^2=19.113, df=4)를 보였다. 의생활, 가족 및 자원 단원에서는 성별로 성인 등장인물의 활동묘사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1〉의 성별에 따른 삽화 속 성인등장인물의 활동 묘사를 직업활동과 비직업활동으로 재범주화하여 살펴보면, 〈표 12〉와 같이 여성의 경우 비직업활동 73.3%, 활동묘사가 아닌 경우 13.8%, 직업활동 12.9%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 비직업활동 63.5%, 직업활동 24.5%, 활동묘사가 아닌 경우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χ^2=9.527, df=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비직업활동의 비율이 직업활동 보다 높은 것는 타교과와 달리 가정 교과 특성 상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 5차와 제 6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의 삽화에서 성인등장인물의 활동과 비교해 보면, 여성이 직업활동을 하는 비율에 있어서 제 5차 26.5%(김재인 외, 1993), 제 6차 33.9%(정해숙·정경아, 1998), 제 7차 12.9%로 나타났다(김선경, 2002). 이는 교육과정기가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직업활동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성별로 차이를 보인 결과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단원별로 살펴보면 주생활에 있어서 여성의 경우 1개의 삽화를 제외한 모든 삽화가 비직업활동(97.9%)으로 묘사되었으나, 남성의 경우 비직업활동이 71.4%, 직업활동이 28.6%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χ^2=13.014, df=1)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생활의 교육내용이 실내디자인, 주택의 유지와 보수 등과 같이 직업활동을 표현하기 어려운 이유에서 비롯

〈표 12〉 단원별 성별 성인등장인물의 직업/비직업활동 묘사

단위 : % (명)

구분		직업활동	비직업활동	활동묘사가 아닌 경우	계	통계량
의생활	여	9.4(6)	43.7(28)	46.9(30)	100.0(64)	χ^2=4.412 df=2 p=.110
	남	22.5(11)	30.6(15)	46.9(23)	100.0(49)	
식생활	여	8.1(3)	91.9(34)	·	100.0(37)	χ^2=1.399 df=1 p=.237
	남	17.1(7)	82.9(34)	·	100.0(41)	
가족	여	11.8(4)	88.2(30)	·	100.0(34)	χ^2=2.248 df=2 p=.325
	남	20.7(6)	75.9(22)	3.4(1)	100.0(29)	
자원	여	35.7(15)	61.9(26)	2.4(1)	100.0(42)	χ^2=.811 df=2 p=.667
	남	34.4(11)	65.6(21)	·	100.0(32)	
주생활	여	2.1(1)	97.9(47)	·	100.0(48)	χ^2=13.014 df=1 p=.000**
	남	28.6(14)	71.4(35)	·	100.0(49)	
계	여	12.9(29)	73.3(165)	13.8(31)	100.0(225)	χ^2=9.527 df=2 p=.009**
	남	24.5(49)	63.5(127)	12.0(24)	100.0(200)	

** $p < .01$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단원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직업활동/비직업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아동 및 청소년 등장인물의 활동 묘사

연구문제 6: 삽화 속 아동 및 청소년 등장인물의 활동 묘사는 단원에 따라 성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가?

성별로 삽화 속의 아동 및 청소년 등장인물의 활동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이 여성 남성 모두 일상가정생활/요리/재봉/집안청소/세탁〉가족관계/친구모임〉운동/예술활동 순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문제 5에서와 같이 가정교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상가정생활 관련 활동이 가정 교과의 내용과 긴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단원별로 살펴보면 의생활·식생활·자원·주생활에 있어서 여성 남성 모두 일상가정생활/요리/재봉/집안청소/세탁이 가장 많았고, 가족 단원의 경우 여성 남성 모두 가족관계/친구모임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모든 출판사에서 성별로 아동 및 청소년의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7. 종합적 분석

연구문제 7: 연구문제 1~연구문제 6에서의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삽화 속 양성평등적, 불평등적 표현에 대한 판단은 단원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들에서 분석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삽화의 양성평등적, 불평등적 표현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 14〉와 같이 평등이 57.2%, 불평등이 39.9%로서 평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구성, 성별분포, 옷의 색과 옷차림, 등장인물의 활동배경과 활동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의 결과가 가정 교과서 삽화의 40%가 양성불평등적으로 묘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기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에서 양성평등적 관점이 더욱 부각되어야 함을 입증한다. 그러나 연구문제 4, 5, 6의 결과에서 해석된 바와 같이 가정 교과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활동배경과 활동묘사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심층분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단원별로 살펴보면 주생활에서 불평등이 59.1%로 평등한 비율보다 높은 것을 제외하고 그 외의 모든 단원에서 평등〉불평등으로 나타났으나, 단원별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생활의 경우 연구문제 5의 결과에서 해석된 바와 같이 주생활 교육내용

〈표 13〉 단원별 성별 아동 및 청소년 등장인물의 활동 묘사

단위 : % (명)

구분		가꾸기/만들기/공부/독서	일상가정생활/요리/재봉/집안청소/세탁	가족관계/친구모임	운동/예술/구경/놀이/봉사	기타	활동묘사가 아닌 경우	계	통계량
의생활	여	9.8(10)	73.5(75)	8.8(9)	6.9(7)	·	1.0(1)	100.0(102)	$\chi^2=3.868$ df=4 p=.424
	남	6.3(4)	65.1(41)	14.3(9)	11.1(7)	·	3.2(2)	100.0(63)	
식생활	여	5.8(5)	63.9(55)	22.1(19)	5.8(5)	1.2(1)	1.2(1)	100.0(86)	$\chi^2=7.459$ df=5 p=.189
	남	4.6(5)	52.3(57)	22.9(25)	8.3(9)	5.5(6)	6.4(7)	100.0(109)	
가족	여	4.2(4)	4.2(4)	62.5(60)	15.6(15)	6.2(6)	7.3(7)	100.0(96)	$\chi^2=6.363$ df=5 p=.273
	남	7.5(9)	7.5(9)	50.0(60)	24.2(29)	3.3(4)	7.5(9)	100.0(120)	
자원	여	10.1(13)	59.7(77)	10.1(13)	13.1(17)	1.6(2)	5.4(7)	100.0(129)	$\chi^2=4.306$ df=5 p=.506
	남	10.7(15)	54.3(76)	11.4(16)	20.0(28)	1.4(2)	2.2(3)	100.0(140)	
주생활	여	9.3(4)	44.2(19)	39.5(17)	7.0(3)	·	·	100.0(43)	$\chi^2=3.168$ df=5 p=.674
	남	7.0(3)	46.5(20)	39.6(17)	2.3(1)	2.3(1)	2.3(1)	100.0(43)	
계	여	7.9(36)	50.4(230)	25.9(118)	10.3(47)	2.0(9)	3.5(16)	100.0(456)	$\chi^2=9.330$ df=5 p=.097
	남	7.6(36)	42.8(203)	26.7(127)	15.6(74)	2.7(13)	4.6(22)	100.0(475)	

〈표 14〉 단원별 종합적 판단

단위 : % (개)

구분	평등	불평등	무관함	계
의생활	58.3(49)	38.1(32)	3.6(3)	100.0(84)
식생활	56.5(39)	42.0(29)	1.4(1)	100.0(69)
가족	72.4(42)	24.1(14)	3.5(2)	100.0(58)
자원	57.0(49)	40.7(35)	2.3(2)	100.0(86)
주생활	36.4(16)	59.1(26)	4.5(2)	100.0(44)
계	57.2(195)	39.9(136)	2.9(10)	100.0(341)

$\chi^2 = 14.736$ df=8 p=.064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Ⅳ. 요약 및 결론

교과서란 가르칠 과목의 내용을 실어 펴낸 책을 말한다.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 중의 하나인 교과서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특히, 교과서에 실린 삽화는 문장만큼이나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양성평등 실현이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되어온 교육내용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가정영역을 중심으로 삽화 속의 양성평등 분석을 통해 그 결과가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시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을 지닐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학생들이 전통적 성역할고정관념이나 성정형성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에 기존에 집필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중 일선 학교에서 활용도가 높은 15권을 대상으로 단원별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삽화 속의 성별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삽화에서 남녀혼성 72.8%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등장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체가 남녀공동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삽화 속의 등장인물간의 관계를 보면 삽화에서 남녀혼성인 경우 가족관계 39.7%, 비가족관계 39.3%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여자들만의 경우 비가족관계가 73.7%, 남자들만의 경우 비가족관계가 71.9%로 나타났다. 이는 제 6차 교과서 분석결과에서 남성은 비가족관계, 여성은 가족관계로 나타난 경우에 비해(정해숙·정경아, 1998), 여성이 대부분 비가족관계로 나타나 제 7차 교육과정 가정교과서는 비교적 양성평등적으로 성별 등장인물간의 관계를 보여주었다는 의미에서 성정형화를 탈피해 보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삽화에서 등장인물의 성별 분포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인 여:남의 비율이 688:680으로 거의 1:1의 비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성별 분포가 양성평등적으로 개선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삽화에서 의생활은 종래와 같이 여성이 많이 등장하였으나, 식생활과 가족단원의 경우 남성이 많이 등장하여 개선된 점이 나타났다.

3. 삽화 속의 옷의 색에 대한 분석은, 전체적으로 불평등 57.9%, 평등 35.1%로 나타나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양성불평등적으로 표현되었다. 단원별로 의생활단원에서는 평등과 불평등이 거의 비슷한 비율이었으나 가족단원에서는 불평등이 70.7%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삽화 속의 옷차림에 대한 분석은, 전체적으로 불평등 52.6%, 평등 23.4%로 나타나 옷차림 역시 양성불평등적인 표현이 많았다. 특히 가족단원은 불평등이 67.3%로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 양성성과 성역할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가족단원에서 나타난 이런 결과는 차후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4. 삽화에서 등장인물의 활동 배경은 단원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삽화에서 가정을 배경으로 한 경우 여성이 조금 높았으며, 학교·야외를 배경으로 한 경우는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다소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

직도 남성이 바깥일을, 여성이 집안일을 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5. 삽화에서 성인등장인물의 활동 묘사를 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비직업활동이 많았으나, 여성보다는 남성이 직업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아직도 성역할고정관념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제6차 교과서 분석 결과(정해숙·정경아, 1998)와 동일하다. 그러나 가정 교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직업활동의 비율이 많은 것은 가정과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양성평등성을 판단하는데 심층분석을 통한 보완적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6. 삽화에서 아동 및 청소년등장인물의 활동 묘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남녀 모두 일상가정생활/요리/재봉/집안청소/세탁 등에 많이 나타났다. 이는 성인들의 활동묘사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가사노동/소비생활/일반생활/자녀양육 등에 많이 나타난 것에 비하면, 남녀학생 모두 가정생활과 관련된 영역에 많이 나타난 것은 양성평등적인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가족단원에서는 가족관계/친구모임에 여학생이 62.5%, 남학생이 50.0%로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아직은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이나 가정생활에 더욱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본 것을 알 수 있다.

7. 삽화에서 등장인물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등·불평등적 표현에 대한 판단 면에서는 평등이 불평등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불평등으로 판단된 삽화가 40%에 달해 제 7차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가정 교과서는 제 6차까지의 교과서와 비교해서는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개선될 점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단원별로는 의생활·가족단원이 식생활·자원·주생활단원 보다 평등이 높게 나타나 각 단원별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교과서 집필에 좀더 세심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양성평등적 관점 측면에서 가정 교과서의 삽화를 살펴볼 때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가정 교과서에는 제 4차, 5차, 6차 교육과정에 비해 성별 구성과 성별분포 측면에서는 개선되었다고 분석되나 아직도 삽화에서 남녀의 옷의 색과 옷차림 측면에서는 양성불평등적 묘사가 나타나고 있었다. 등장인물의 활동 배경과 활동 묘사의 경우 연구결과 부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정교과의 특성 및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심층분석을 통한 해석이 요구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앞으로 차기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시의 유의점 및 2종 도서 검정 기준에서 삽화의 양성평등적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와 지향점이 뚜렷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단순히 여:남의 비율이 1:1이 되면 된다는 기초적인 수준에서 탈피하여 옷의 색, 옷차림, 등장인물간의 관계, 활동배경과 활동묘사, 성역할, 직종분포 등이 단원을 초월하여 고려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가정 교과서는 모학문인 가정학의 특성상 단원별로 집필진이 구성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가정학 내의 개별학문 전공자들이 집필에 임할 때 양성평등적인 관점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양성평등적/불평등적인 사례를 충분히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집필자를 위한 워크샵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서의 삽화의 경우 집필진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출판사의 삽화가가 그리거나 기존의 삽화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출판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요구된다.

이밖에 가정 교과서에서 현대사회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노동 운동, 환경보전운동,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삽화에서 남성들은 간혹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운동이나 여성 정책 등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변화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삽화에 표현되지 않고 있기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교사들은 삽화를 분석하는 안목을 기르고 잘못된 삽화를 재구성하는 학생활동을 활용하거나 수업 중 학생들이 삽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차기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 연구에서 논의된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중학교 가정 교과서가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새로운 양성평등의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 투고일자 : 2004년 11월 14일

참 고 문 헌

교육부(1999a).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 학교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연수자료.

교육부(1999b). **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교육부(1999c).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개발에 따른 집필상의 유의점**(고등학교).

교육부(1999d).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2종 도서 검증 기준**.

교육부(2000).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인적자원부(2001).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김선경(2002). 제 6, 7차 실과, 가정, 기술, 기술·가정 교과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양희, 이수연, 김혜영(2002).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 평등의식 검사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김재인·정해숙·양애경(199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남녀 역할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재춘·왕석순(1999).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 실현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정자·임선희·이영세·강선혜(1985).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정자·임선희·이영세·강선혜(1986).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역할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지희(2001). 초등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성별 편중성.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현(2003).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생활환경.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김판욱 외 8인(2002). **중학교 기술·가정 1**. 지학사.

김판욱 외 8인(2002). **중학교 기술·가정 2**. 지학사.

김판욱 외 8인(2002). **중학교 기술·가정 3**. 지학사.

남지현(2002). 중등학교 양성평등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남철우·권영길(2002). 제 6차와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삽화 비교 분석. **초등교육연구, 17**(1) 73~91.

박기범(1990). 광고연구에 관한 문헌적 고찰-과거 10년간(1980-1989) 광고 학위논문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순경(1997). 초등 저학년 통합 교과서의 삽화 제시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 : 한국, 일본,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제25집**, 53~70.

사미숙(2003). 가정과 교육과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화경 외 9인(2002). **중학교 기술·가정 1**. 동화사.

성화경 외 9인(2002). **중학교 기술·가정 2**. 동화사.

성화경 외 9인(2002). **중학교 기술·가정 3**. 동화사.

손연식(2001).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양성평등 교육상의 문제점 분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신동희(2000). 양성평등교육의 관점에서 본 초등학교 자연 교과서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0**(2), 193~199.

심영희 외(2002). **함께 이루는 남녀평등**. 나남출판.

안혜영(1998). 초·중등 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성별 편중성에 관한 연구. **이화교육논총, 제9권**, 61~73.

왕석순(2000). 고등학교 가정과 가족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수업지도안 개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3), 77~91.

유태명(2003). 양성평등한 생활문화와 사회를 위한 가정과교육.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유희정(2000). **취학 전 아동의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이대형(1998). 초등학교 자연 교과서 삽화 분석. **과학교육연구, 제21권**, 57~69.

이덕주(1999).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민복(2002). 실과교육에서 교사의 양성평등의식과 교육실천에 대한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봉구 외 6인(2002). **중학교 기술·가정 1**. 금성출판사.

이봉구 외 6인(2002). **중학교 기술·가정 2**. 금성출판사.

이봉구 외 6인(2002). **중학교 기술·가정 3**. 금성출판사.

이상혁 외 11인(2002). **중학교 기술·가정 1**. 두산.

이상혁 외 11인(2002). **중학교 기술·가정 2**. 두산.

이상혁 외 11인(2002). **중학교 기술·가정 3**. 두산.

이정희(1997). 초등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 분석 -제 6차 교육과정 3-4학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장세준(2000).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 분석. 호남대 석사학위 논문.

전국교사협의회(1989). **학교교육과 성차별**.

정대련(2003). 아동: 양성평등한 가정의 미래를 위하여.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정성봉 외 7인(2002). **중학교 기술·가정 1**. 교학사.

정성봉 외 7인(2002). **중학교 기술·가정 2**. 교학사.

정성봉 외 7인(2002). **중학교 기술·가정 3**. 교학사.

정세화(1977).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 **한국의 남녀역할관**. 한국교육개발원.

정해숙, 김연(2002). **초·중등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내용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정해숙·유희정·이홍림·이순열(1998). **학교내 성차별 실태 조사 및 남녀 평등의식 고취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정해숙·정경아(1998).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제 6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정해숙·정경아(2003). **교사의 성인지적 교육활동 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정해숙·최윤선(2001). **OECD국가의 성평등 교육정책**. 한국여성개발원.

정혜윤(2001). 중학교 가정과 교사와 기술과 교사의 양성평등의식과 양성평등 교육 실천 차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은희(1996). **한국 교육에서의 성차별 모니터링**.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명희(1983). 국민학교 어린이의 성역할 의식과 교육의 관계. **동국대학교 논문집, 22집**, 1-20.

한명희 외(1991). **제 6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체제 및 구조 개선 연구**.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Chang, B. M.(2003). English textbook analysis for developing the 8th national curriculum.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9*. Special Issue.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Holiday, W. G.(1990). *Textbook illustration: Fact or filler*? The Science Teacher.

Houston, B.(1985). Gender freedom and the subtitles of sexist education. *Educational Theory*, 35(4), 359-369.

Kassajian, H. H.(1987). Consumer analysis in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 pp.8-18.

Vogel, L.(1993). *Mothers on the job.* New Jersey: Rotgers University Press.

Wolgast, E. H.(1980). *Equality and the rights of wome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양성평등 실현이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되어온 교육내용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가정영역을 중심으로 삽화 속의 양성평등 분석을 통해 그 결과가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시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을 지닐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에 기존에 집필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중 일선 학교에서 활용도가 높은 각 학년별 5개 출판사, 총 15권을 대상으로 삽화를 단원별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초한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가정 교과서에는 제 4차, 5차, 6차 교육과정에 비해 성별 분포와 성별 구성, 등장인물간의 관계 측면에서는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삽화에는 남녀의 출현과 관련하여 성 역할이나 활동 배경, 활동 묘사, 옷의 색과 옷차림 등에서 남녀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등장인물의 상황을 고려한 평등·불평등적인 면에서는 평등이 불평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삽화의 40%가 불평등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요구된다. 교과서 집필 시 단원별로 저자가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원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얻고, 단원별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층 분석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교과서 집필에 양성평등적인 관점을 관철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과 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